"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세요"

전주시 · 전주시의회, 긴급 추경 신속한 본회의 상정으로 추경예산 편성… 오늘부터 지급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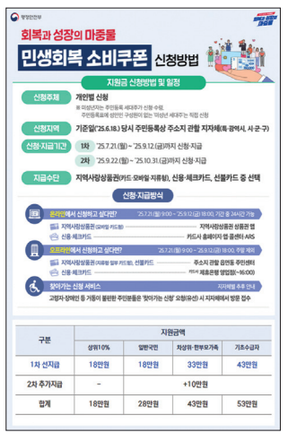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발빠른 협력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주시민들에게 정부가 2025년 경제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개시 첫날부터 지급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전주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추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시작일인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동시에 도모하는 맞춤형 지원대책이다.

신청은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며 1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하위 90% 시민을 대상으로 일괄 지급하는 한 2차분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중 1차 지급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신청 초기 몰림에 따른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은 첫째 주(7월 21일~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둘째 주까지 적용된다.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시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에 따라 2차 지급신청을 포함해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53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사용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기간제 인력과 전산장비를 보강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탄탄한 준비와 차질 없는 체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시는 이날 시민들이 혼잡 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쿠폰 신청 기간에 앞서 평화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장 시연회을 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원활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34개 동 주민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전수 점검했으며, 오는 28일부터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지역 내 소비가 되살아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고, 시민들의 체감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전주시 지역경제 전반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으로 전주시민의 더 많은 일상이 회복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생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전주시의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안전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국번없이 110)나 전주시 전용 콜센터(063-281-8731~8737), 각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와 온고을 PMJF 라이온스 클럽은 지난 17일 온고을 PMJF 라이온스 클럽 회의실에서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과 이상철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백질 식품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돌봄 대상 노인 단백질 식품꾸러미 지원

전주시-온고을 PMJF 라이온스 클럽, 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가 민간단체와 손잡고 단백질 결핍이 우려되는 의료-돌봄 대상 노인의 건강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와 온고을 PMJF 라이온스 클럽(회장 이상철)은 지난 17일 중화산동 온고을 PMJF 라이온스 클럽 회의실에서 이혜숙 전주시 노인복지과장과 이상철 회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백질 식품꾸러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 증진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시와 온고을 PMJF 라이온스 클럽은 단백질 식품꾸러미 지원을 통해 단백질 섭취 부족으로 근력 저하가 우려되는 노인 20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2만 원 상당의 식품꾸러미를 제공해 근육 생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식품꾸러미는 육류와 어패류, 견과류, 달걀, 두부, 콩나물, 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구성되며, 대상자 모집이 이미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배달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백질 식품꾸러미 지원사업은 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재능과 후원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주시 재봉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의미를 더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여성 정신장애인 위한 '참사랑낙원 여성생활관' 준공

정신질환을 겪는 전주지역 여성장애인을 위한 쾌적한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지난 18일 완산구 대성동에 위치한 참사랑낙원에서 정신질환 여성 거주인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인 '참사랑낙원 여성생활관'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 김형석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참사랑복지회 김기원 대표이사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여성생활관 준공을 축하하고, 정신장애인 복지 향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참사랑낙원 여성생활관(사랑관)은 국비 16억 3000만 원 등 총사업비 32억 6000만 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연면적 1087㎡ 규모로 조성됐다.

이날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하여 "참사랑낙원 여성생활관은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정신장애인 여성분들께 희망과 존엄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홍보영상, '최고의 여행 영상' 선정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골드어워드 마케팅 부문 수상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선율과 전주 곳곳의 관광명소의 매력이 담긴 전주시 홍보영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홍보 영상으로 평가됐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선율과 전주 곳곳의 관광명소의 매력이 담긴 전주시 홍보영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홍보 영상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는 스티브 바라캇이 작곡하고 전주시에 헌정한 곡 '전주 랩소디(Jeonju Rhapsody)'를 활용한 관광홍보영상이 2025 PATA(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골드 어워드 마케팅 부문 '최고의 여행 영상(Best Travel Video)'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Pacific Asia Travel Association)는 약 80여 국가의 정부기관과 관광기구, 항공사, 관광업계 등 650여 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 관광 협력 기구다.

'PATA 골드 어워드'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관광산업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매년 골드어워드를 통해 각 분야별 우수사업이 선정되고 있다.

수상작인 '전주랩소디' 관광 홍보영상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스티브 바라캇의 감미로운 선율과 어우러져 전주만의 고유한 멋과 현대적인 매력을 동시에 선보여 심사위원단의 극찬을 받았다.

앞서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캇(Steve Barakatt)이 '2024-2025 한국-캐나타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지난해 전주 방문 후 영감을 얻어 전주 랩소디를 작곡하고 전주시에 헌정했다.

시는 PATA 골드 어워드 수상을 통해 '전주랩소디' 관광 홍보영상의 파급력을 더욱 높이고,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K-문화의 중심지인 전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서 전주관광홍보관 운영

관광거점도시 전주시가 수도권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여행박람회에서 전주 관광 홍보전을 펼친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리는 '제10회 대한민국국제관광박람회'에서 전주 여행명소를 알리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맞추어 최신 콘텐츠를 소개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여행 전문박람회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박람회에서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부스 내 전주관광 영상 콘텐츠를 선보이고, '비짓전주' SNS 팔로워 이벤트 등을 통해 전주 관광 홍보마케팅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비짓전주' SNS 팔로워 이벤트를 통해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관광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B2B상담회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요 여행사와 전주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정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